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한우 수급안정 등을 위해 한우 품종 이외에 한우 수정란 이식 자제 요청

1. 축산경영과-2149호(2021.3.24.) 및 2999호(2021.5.3.)와 관련됩니다.
2. 한우 사육과잉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향후 한우 수급불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부는 관련 호로 한우산업이 안정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각 기관·단체에 사육과잉을 유발할 수 있는 지원사업 조정, 자율적인 입식마릿수 조절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한우 생산자단체에서는 일부 지자체가 한우 이외에 다른 품종(젓소)의 암소에 한우수정란 이식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 한우 수급안정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지자체에서는 한우개량 및 혈통보전 연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품종의 암소에 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한우 수급안정 차원에서 축소·조정해 주시기 바라며,
5.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관련 생산자단체에서도 회원농가들이 한우 수정란 이식을 통한 송아지 생산활동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동물보호과장), 인천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대구광역시(농산유통과장), 광주광역시(생명농업과장), 대전광역시(농생명정책과장), 울산광역시(농축산과장), 세종특별자치시(농업축산과장), 경기도지사(축산정책과장), 강원도지사(축산과장), 충청북도지사(축수산과장), 충청남도지사(축산과장), 전라북도지사(축산과장), 전라남도지사(축산정책과장), 경상북도지사(축산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축산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축산정책과장), (사)전국한우협회, (사)한국낙농육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

주무관 정광호 사무관 김정수 축산경영과장 전결 2021. 7. 21. 박홍식

협조자 사무관 홍석구

시행 축산경영과-4628 (2021. 7. 21.) 접수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어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333 팩스번호 044-868-0127 / abuzegi@korea.kr / 대한민국 공개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